

**뉴욕증시 - 美 경제 우려 커졌다 ...막판 급락 '5일째' ↓**

**1. 美 FRB "예상대로 금리 동결... 성장률·금리 전망도 내렸다"**

...2017-2018년 금리인상 속도 둔화 예상

**2. 엘런 의장 "고용지표 악화·브렉시트·물가 부진"에 금리 동결**

...엘런,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 안해

**3. 美 경제지표 혼조**

\* 5월 산업생산 (MoM) 0.6% → -0.4% (예상:-0.2%) ...위축

\* 5월 제조업생산 (MoM) 0.2% → -0.4% (예상:0.1%) ...2014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 5월 PPI (MoM) 0.2% → 0.4% (예상:0.3%)

\* 6월 NY엠패이어스테이트제조업지수 -9.02 → 6.01 (예상:-4.00)

**4. 유럽증시, 5일 하락 끝에 상승 반전 ...英 0.97% ↑**

...장기간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이어지며 반등

**5. ECB 부총재 "물가 상승 예상보다 빠를 것 같다"**

국제 증시			국제 상품		
<b>DOW30</b>	17640.17	(-0.20%)	<b>WTI</b>	48.01	(-1%)
<b>NASDAQ</b>	4834.93	(-0.18%)	<b>COMEX금</b>	1288.30	(+0.02%)
<b>S&amp;P500</b>	2071.50	(-0.18%)	<b>COMEX구리</b>	2.0910	(+2.47%)
<b>KOSPI</b>	1968.83	(-0.16%)	<b>주요국가 10y국채</b>		
<b>KOSDAQ</b>	694.66	(+0.25%)	<b>한국</b>	1.622%	(-1.3bp)
<b>국제 통화</b>			<b>미국</b>	1.57%	(-4.1bp)
<b>유로/달러</b>	1.1258	(+0.0053)	<b>영국</b>	1.12%	(-2.3bp)
<b>유로/엔</b>	119.35	(+0.48)	<b>독일</b>	-0.01%	(-0.7bp)
<b>달러/엔</b>	105.99	(-0.1)	<b>프랑스</b>	0.40%	(-2.3bp)
<b>달러/위안</b>	6.6001	(+0.0210)	<b>이탈리아</b>	1.49%	(-0.8bp)
<b>원/달러</b>	1173.30	전일 1173.20	<b>스페인</b>	1.55%	(-0.3bp)
<b>NDF</b>	1170.50 / 1171.50원	3.05원 하락	<b>그리스</b>	7.99%	(-2.5bp)

금일 예정 지표			
국가	경제지표	Previous	Forecast
<b>[ BOE &amp; BOJ 통화정책회의 ]</b>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64K	270K
	-6월 필라델피아연은제조업지수	-1.8	1.1
	-5월 CPI (MoM)	0.4%	0.3%
	-5월 근원CPI (MoM)	0.2%	0.2%
유로존	-5월 CPI (MoM)	0.0%	0.3%
영국	-5월 소매판매 (MoM)	1.3%	0.2%

<2016년 6월 16일 시황>

## 1. 전일 장중 동향

\*KTB: 시가 110.62 / 종가 110.64

\*LKT: 시가 131.06 / 종가 131.25

1) 15일 채권 시장은 커브가 소폭 플랫되며 FOMC에 대한 관망세에 마감. 그리고 16일 아침 미 연준은 시장 참가자들의 예측대로 금리를 동결, 그리고 옐런 의장의 발언에 더욱 주목. 먼저 옐런 의장은 5월 고용지표가 예상치(16만) 대비 실측치가 쇼크 수준(3만8천)을 보인 것을 언급, 또한 브렉시트 리스크 또한 이번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언. 브렉시트에 관련해서는 결과에 따라 미국 전체의 경제전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 하지만 옐런은 다음 FOMC에서의 금리 인상에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다음 연준에서 강한 지표들이 확인 되면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 언급. 애초 4차례 예고되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올해 남아 있는 4번밖에 남지 않은 FOMC 결과에 따라 달라질 예정. 전체적으로 비둘기파 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미 채권 시장도 강세 마감하였으며, 금일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IRS 시장은 6개월-1년물은 보합, 2년 이후 구간에서 0.75-1.75bp 하락하며 커브는 플랫. FOMC 관망세에 거래가 제한된 면은 있었으나, 외국인인 국채 매수에 나서며 16일 옐런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는 장세 연출.

3) CRS 금리는 단중기는 상승, 장기물은 하락세를 보이며 IRS와 마찬가지로 커브가 불플랫. CRS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단기 구간에서 비디시 한 모습이었고, 많은 거래량은 없는 가운데 한산한 장세. 금일 옐런 의장의 연설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

국내 주요 금리			BOND SWAP SPREAD		
<b>3y</b>	1.339%	(+2.6bp)	<b>3y</b>	-4.4bp	(-1.0bp)
<b>5y</b>	1.409%	(-0.7bp)	<b>5y</b>	-8.9bp	(-1.1bp)
<b>10y</b>	1.622%	(-1.3bp)	<b>10y</b>	-18.5bp	(0)
<b>CD</b>	1.390%	(0)			

IRS OUTRIGHT			IRS SPREAD		
<b>1Y</b>	1.3225%	(0)	<b>1*2Y</b>	-2.75	(-0.75bp)
<b>2Y</b>	1.2950%	(-0.75bp)	<b>2*3Y</b>	0.00	(0)
<b>3Y</b>	1.2950%	(-0.75bp)	<b>2*5Y</b>	2.50	(-1.00bp)
<b>5Y</b>	1.3200%	(-1.75bp)	<b>3*5Y</b>	2.50	(-1.00bp)
<b>7Y</b>	1.3625%	(-1.50bp)	<b>5*7Y</b>	3.75	(-1.50bp)
<b>10Y</b>	1.4375%	(-1.25bp)	<b>5*10Y</b>	11.00	(-1.25bp)